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김세진 애니메이션 작가 ‘평화의 소녀상...’ 발간
104일간 전국 돌며 75개 소녀상 그려
광주 ‘숨’서 북콘서트... 9월 1일까지 전시회



김세진 작가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6년 종로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했다. 어느 날 한 시민이 “전국에 있는 소녀상이 몇 개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작 소녀상에 대해 아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녀상은 모두 똑같지 않을 까라고, 생각했었다. 그에게 소녀상 수를 물었던 시민이 ‘전국 소녀상 지도’를 건네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소녀상 그리기 일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됐다. 104일간의 그림 기행은 김세진 작가에게 소중한 추억을 넘어 삶의 이정표가 됐다.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하는 동네책방 ‘숨’ (대표 안석)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그리다’ (보리) 김세진 작가 콘서트가 열렸다. 때마다 9월 1일까지 이곳에서는 김 작가의 소녀상 원화 전시회도 열고 있다.

“처음엔 특별히 어떤 전시회나 책 발간과 같은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녀상을 그려서 할머니들께 드리면 좋겠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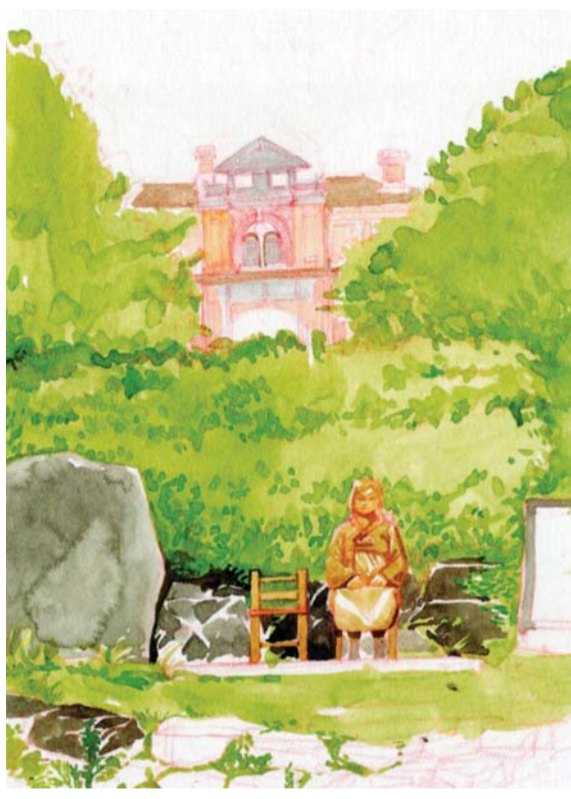
생각이 깊어 보이는 김 작가는 그림 기행의 계기를 그렇게 말했다. 전주 출신의 김 작가는 우리나라로 올해 서른 넷.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부를 수료하고 내년 2월 졸업할 앞두고 있다. 직장엔 취업해 한창 돈을 벌거나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나가기 할 나이에 그는 ‘돈이 안 되는’ 일에 매달렸다.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그는 자신만의 견고한 예술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 보였다.

김 작가의 이미지는 콘서트가 열리는 동네 책방 ‘숨’과도 잘 어울렸다. 숨은 지난 2011년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책방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북스테이를 갖춘 곳으로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열린다.

안석 ‘숨’ 대표는 “현대인들이 놓이기 쉬운 자칫만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숨과 숨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왔다”며 “이번 전시회와 북콘서트도 그 같은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도 김 작가의 취지를 공감한 30여 명 남짓한 독자들이 행사 전에 찾아와 다양한 소녀상 그림을 둘러보는 모습이 띄었다.

김 작가는 “당초 2016년 1월 소녀상 지킴이로 12·28한 일합의 파기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사회참여를 시작했다”면서 “이후 전국의 소녀상을 찾다니며 밤에는 노숙을 하고 낮에는 그림을 그렸다”고 덧붙였다.

“맨 먼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그렸어요. 그렇게 시작해 경성, 전라, 충청, 강원, 경기도를 거쳐, 서울까지 모두 75곳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갔습니



저자는 목포근대역사관 앞 소녀상은 제국주의 잔재가 있어 미완성으로 남겨뒀다.

다.”

광주시청 앞 시민숲 광장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은 십대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마련됐다. ‘작사모’ (작한 사람들의 모임)가 클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14일)에 세웠다. 평화의 소녀상은 타 지역의 소녀상과는 달리 일어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이처럼 각 지역의 소녀상은 저마다 다른 특징이 있다. 돌로 만든 토탑 같은 투박한 소녀상(경남 통영), 뒷모습을 보여주는 소녀상(경기 부천), 한국과 중국 소녀가 함께 있는 다국적 소녀상(서울 성북)처럼 표정도, 자세도, 배경도 다르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소녀상은 광주독립학생운동이 나주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착안해 멧기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곡성문화원의 소녀상은 피난길에 짐장다리를 건너다 신발을 흘리는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책에는 서로 다른 75개 소녀상의 그림이 담겨 있다. 서로 다른 소녀상은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넘어 평화와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적잖은 고충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다가와 사비조로 ‘돈이나 벌지 쓸 데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느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있는 소녀상.

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 ‘대학생 농성 소녀상 기리기’ 깃발을 들고 다녔거든요. 어떤 이는 ‘소녀상 파이팅’하고 외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과일을 주거나 찜질통을 쥐어 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해주기도 했죠.”

김 작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1개 소녀상이 있다. 이번 책에는 소녀상이 세워진 위치, 건립 날짜, 소녀상을 만든 작가, 공공조형물 지정 여부 등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장호순 씨는 “어떻게 해서 전국의 75개 소녀상을 그리게 되었는지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왔다”며 “자지만 내실있게 진행되는 문화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인권교 육만화 등을 그리는 게 꿈입니다. 우리들이 있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 등을 작품에 담아내고 싶거든요.” (김세진) 문의 010-7190-942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낮익은 것에서 낯설 발견하기

은암미술관 이달말까지 황정후전

열려 있는 냉장고는 쓰임새가 다른 것 같다. 야채와 음료수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고 냉장고 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양한 책과 각종 종이 자료들이다. 탐스러운 사과에는 파인애플 쪽지가 붙어있고 참외를 절단한 단면에 보이는 건 녹색 키보드. 낮익은 것에서 낯설 발견하기. 황정후 작가의 작품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다.



은암미술관(광주 채종기)이 오는 31일까지 은암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 ‘Mixed Signal 황정후’전을 개최한다.

황정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꾸준히 작업해 온 과일시리즈, 사진 작업의 시작점이 됐던 마스크시리즈 작품과 함께 플라주 기법으로 제작한 신작 ‘Mixed Souvenir’ (사진) 시리즈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작가의 작품들은 예측 가능한 일상의 문맥에서 벗어난다. 대표작 과일 시리즈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과일이 낯선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며 마스크 시리즈 역시 사람들의 얼굴에 인위적인 가면을 씌우거나 투명한 랩을 칭칭 감아 진면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중국 북경에서 ‘Fruit x Fruit’를 주제로 초대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황정후 작가가 고향 광주에서 여는 첫번째 개인전이다. 프랑스 생테티엔느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한 황정후 작가는 10여년간 프랑스에 체류 후 귀국, 광주에서 작업을 해 왔으며 2015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로 선정돼 레지던시를 마친 뒤에도 북경 학교예술구에 작업실을 열어 작업과 활동을 이어가다 지난해 귀국했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여름밤, 눈조각 보셨어요?

크라운해태, 광주폴리·문화전당 인근서 개최

“한여름에 등장한 눈조각” 크라운해태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재)광주비엔날레가 후원하는 ‘한여름밤의 눈조각전’이 18-19일 광주폴리 I ‘광주사랑방’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개최됐다. <사진>



“한여름밤의 눈조각전”은 광주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폴리와 눈조각을 접목한 이색행사다.

크라운해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회까지 진행했던 눈조각전을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 가능한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m×1m×1.5m 크기의 9점 대형 눈조각이 현장에서 제작됐으며 포토존도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크라운해태는 지난해 광주폴리 III 후원 등 (재)광주비엔날레와 깊은 인연이 있으며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크라운해태 눈조각전을 2019년부터 유치하고 광주폴리와 연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